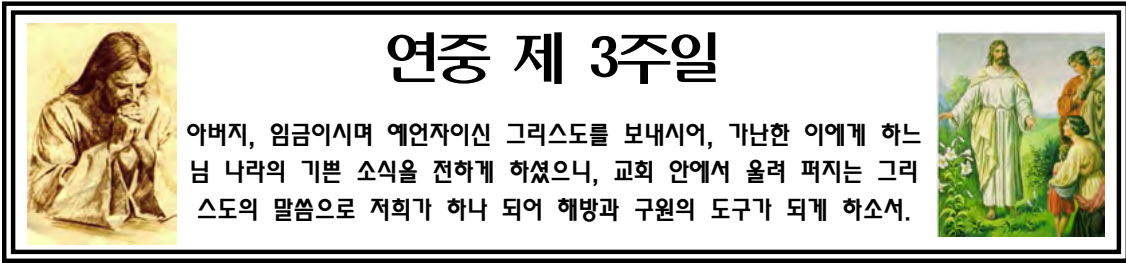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 3주일

아버지, 임금이시며 예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으니, 교회 안에서 올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해방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1월 기도지향

- 박성기(모이세), 김정욱(수산나) 가정
- 박철수 유미영(마리안나) 가정

☞ 2월 기도 지향 : 김정원(베드로), 김말자(세실리아) 가정
정한조, 정지현(막달레나) 가정

2월 첫 침례

- 첫 금요일 미사 : 2/1(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첫 토요일 미사 : 2/2(토) 오전 10시, 미사 전 묵주의 기도
- 첫 목요일 미사 : 2/7(목) 오전 10시

2월 구역모임

- 1구역 : 2/2(토) 오후7시, 김화년 요안나 덕 10558 Bradshaw st. Overland Park, KS 66215
- 3구역 : 2/2(토) 오후7시, 박희영 카타리나 덕 14205 Rose hill st. Overland Park, KS 66221
- 4구역 : 2/1(금) 오후7시, 안동현 프란치스코, 지은경 리브가 덕 14317 Hadley st. Overland Park, KS 66223
- 5구역 : 2/2(토) 오후7시, 김정환 요한, 윤윤아 글라라 덕 9008 N.Lewis Ave. Kansas City, MO 64157

설날 합동위령미사

명절을 맞아, 새해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미리 위령미사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위령 미사는 2/10(일) 오전 11시입니다.

Archbishop' s Call To Share

캔사스 대교구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기금 마련에 저희 한인 공동체도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본래 개인별 1년 약정 봉헌인데, 저희는 두 차례(1/27과 2/3)에 걸친 ‘목적 현금’으로 대주교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 1월 평협 토의를 거쳐 ‘구유예물’과 사순 ‘라이스 볼’도 교구로 송금합니다.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2/2)’을 맞아 본당 제대와 가정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할 초를 봉헌 받습니다. 미리 전례분과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한 자루에 3불입니다. 축복식은 2/3(일) 중심미사 때 있습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1/26(토) 오후 5시
- 장소 : KU 성 로렌스 성당

기타

- 주일미사 10분 전,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1단’을 봉헌하겠습니다.
- 청소년 겨울 현장학습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육분과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주일(1/27), 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 2012년 연말정산용 교무금 납입 증명서 발급합니다(1/27).
- ‘제의 수요일(2/13)’에 사용할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62	41	156/155	446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주	정수한(베 드 로)	문석찬(요 셉)
	정예찬(미 카 엘)	문예나(요 안 나)
차주	안광민(야 고 보)	김태중(에레미아)
	안광희(크 리 스)	문호진(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금주	김수연(율리안나)	김태중(에레미아)
	박혜정(카타리나)	김시연(엘리사벳)
차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김명은(안 젤 라)	문문주(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최선윤(마리아), 정연숙(막달레나) 황의정(율리안나), 김제은(수산나)
차주	서정애(안젤라), 김화년(요안나) 정선식(베로니카), 김경돌(수산나)

헌금 봉사자

금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차주	문문주(엘리사벳)	김시연(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현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현금	교무금
1/13	101명	429불	1,700불
1/20	105명	557불	440불

연중 제3주일
해의 원조 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3년 1월 27일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들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성화해설

천지창조-아담의 창조 (Michelangelo Buonarroti, 프레스코 1511, 시스티나 경당 바티칸)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6-27)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는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드러나는 매우 위대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그 넓고도 깊은 친밀함이 드러난다.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느헤 8,2-4 7.5-6.8-10 < 레위인들은 율법서를 설명하면서 읽어 주었다. >



주 님 당 신 의 말 씀 은 영 이 요 생 명 이 오 이 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를 도와 주고 주님의 법은 건실하여 둔한 자를 가르치도다. ◎

○ 주님의 계명은 올바르니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법은 환하니 눈을 밝혀 주도다. ◎

○ 주님을 경외함은 순전하니 영원히 남고 주님의 판단은 참다우니 모두가 다 옳도다. ◎

○ 저의 바위시여 저의 구속자이신 주님 제 입의 말씀과 이 마음의 묵상이 어전에 가납되기 비옵나이다. ◎

제 2 독서 : 1코린 12,12-30<또는 12,12-14.27> <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복 음 : 루카 1,1-4; 4,14-21 <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

쉐 마

“자기중심적 하느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고향인 나자렛의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신 이야기입니다. 낭독하신 것은 이사야서(61,1-2; 58,6)의 몇 구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가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복음 선포를 당신의 고향인 나자렛에서 시작하게 엮었습니다. 그는 나자렛에서도 유대교 회당을 첫 복음 선포의 장소로 택합니다. 유대교를 모태로 발생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게 한 것은 그 예언서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잘 부합한다고 저자가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가난한 이’, ‘잡혀간 이’, ‘눈먼 이’, ‘억압받는 이’, 곧 이세상의 실패자들과 불행한 이들에게 메시아가 하느님의 은혜로우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초기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전진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국권을 먼저 회복해 주고, 그들의 적을 “질그릇 부수듯이... 짓부수어서”(시편 2,9) 이스라엘이 세상 만방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은혜로우신 하느님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생각할 때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시험에 합격시켜주고, 사업을 성공시켜주는 하느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높은 사람, 강한 사람 편에 서신 하느님을 상상합

니다. 그러나 그런 하느님은 은혜로운 분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느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 하느님은 몇몇 사람에게 권위와 성공을 보장해 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긍정하면,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쉽게 부정합니다. 흑백(黑白) 논리입니다. 유대교는 율법 지키기를 권장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모두 단죄하였습니다. 율법은 본시 은혜로우신 하느님을 인간이 자각하며,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실천하여, 하느님이 인간 안에 살아 계시게 사는 데에 필요한 지침이었습니 다. 유대교는 성전에 제물을 바치라고 강조하면서 제물 봉헌을 하지 못하는 이를 모두를 죄인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제물 봉헌은 본시 자기가 얻은 것을 하느님 앞에 가져와서, 베푸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게도 그것이 은혜롭게 나누어지게 하는 의례였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로우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흑백 논리로 은혜로우신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하느님의 은혜로우심을 알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공과 실패에 구애받지 않고, 하느님의 은혜로우심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느님을 알아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에게 유일한 화두(話頭)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은혜로우심을 실천하지 않고, 은혜로우신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그만큼, 우리는 하느님과 무관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내리셔서 우리도 성공과 실패라는 우리의 논리에서 벗어나, 은혜로우신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서 참으로 자유로운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 중 물

죄의 다섯가지 의미

신약 성경에는 죄에 대한 단어가 다섯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말티아’ 입니다. 이것은 팔이나 종을 쓰았을 때, 파격을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정확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둘째, ‘선을 넘어 서다’ 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규칙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 서는 무례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죄입니다.

셋째, ‘아노미아’ 라는 단어입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나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심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계명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계명을 어기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불의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넷째, ‘미끌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바나나 껍질을 밟은 사람처럼 자신도 모르게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 버린 경우입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와 의지가 있다 해도, 결과가 악하다면 선한 동기와 상관없이 죄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페일레마’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느님 앞에서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둠의 자녀들이요, 죄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2장 사도신경

제1절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16. 유일하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신앙(信仰) 곧 믿음이란 유일하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단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이 위대”(욥 36,26)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제일 먼저 섬겨야” 합니다.

- 우리의 본질 전체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창세 1,26) 창조되었기에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면 선용하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면 멀리하도록 해 줍니다.
- 신앙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신뢰하게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2-227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